

## 기비노 마키비 공원

기비노 마키비(695~775)는 천문학 개량, 음양도의 점술, 바둑 등 많은 중국 문화 요소를 일본에 들여왔다고 여겨지는 영향력 있는 정치가입니다.

지방 호족으로 태어난 기비노 마키비는 어렸을 적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궁정 관리로 조정에 들어간 그는 717년에는 견당사가 되어 당나라에 파견되었습니다. 견당사란 607년부터 838년 걸쳐 일본이 중국에 파견한 19개의 사절단 중 하나로 폭넓은 분야의 연구가 목적이었습니다. 기비노 마키비는 당나라에서 17년간 머물렀으며 후에 일본 궁정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릅니다.

기비노 마키비 공원은 마키비 가문과 인연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에 만들어졌으며 그의 수많은 공적을 기립니다. 공원에서는 우뚝 서 있는 기비노 마키비 상, 점성술의 신비한 상징이 그려진 조형물이 원형으로 늘어선 광장, 거대한 돌 바둑판, 기비노 마키비의 과학적 및 천문학적 연구를 기리는 해시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기비 다이진구 신궁이 있습니다. 기비노 마키비를 모신 작은 신사로, 지역의 학생 및 부모가 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기리며 기비노 마키비가 그려진 에마(소원을 적는 목판)에 학업성취를 기원합니다.